

安鼎福의 抄書와 『雜同散異』

-『破閑集』, 『思齋撫言』, 『於于野談』의 抄書와 特徵을 중심으로-

최 식*

- I. 머리말
- II. 『破閑集』 초서와 특징
- III. 『思齋撫言』 초서와 특징
- IV. 『於于野談』 초서와 특징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지금까지 『파한집』, 『사재척언』, 『어우야담』의 초서와 특징을 중심으로 안정복의 초서와 『잡동산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잡동산이』 권29(초고본)에는 『파한집』, 『사재척언』, 『어우야담』 등 국내 필기잡록류를 초록하고 있다. 일찍이 홍만중은 『사재척언』과 『어우야담』 가운데 시화를 선집하여 『시화총림』을 편찬한 바도 있어 참고할 만하다.

『잡동산이』에 수록된 「破閑集抄」, 「思齋撫言抄」, 「於于野談」의 내용과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안정복이 『파한집』을 초록하는 방식은 『동문선』의 수록 여부에 따라 다르다. 안정복은 『파한집』을 초록하여 『잡동산이』에 편집하면서, 한시

* 국립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부교수 / choicesik@hanmail.net

작품과 당시 정황을 파악하는데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초록하고 있다. 또한 『사재척언』을 초록하는 방식은 『시화총림』의 수록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웃음을 유발하는 내용이 상당수에 해당한다. 이는 필기잡록류 가운데 시화뿐 아니라 웃음을 유발하는 笑話의 기능을 고려한 안정복의 의도로 읽혀진다. 아울러 「어우야담」의 초록 방식은 앞선 「과한집초」·「사재척언초」와는 판이하다. 『어우야담』의 내용을 축약하여 초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서하다가 중요하거나 인상적인 대목을 표시하고 옮겨 적은 형태로 보인다. 한 마디로 안정복의 초서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전달하려는 의도이며, 이는 『잡동산이』의 내용과 특징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 주제어

안정복, 抄書, 특징, 『雜同散異』, 「破閑集抄」, 「思齋撫言抄」, 「於于野談」

1. 머리말

조선 후기 근기 남인을 대표하는 順菴 安鼎福(1712~1791) 관련 연구는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었고, 근래에는 類書 혹은 百科全書로 알려진 『雜同散異』까지 그 연구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이다.¹⁾

안정복은 서책을 빌려 밤낮으로 초서하여 鈔書籠에 서책을 구비하고,²⁾ 초서룻에 장서한 서책을 바탕으로 수많은 저서를 완성하여 著書籠을 채운 바 있다.³⁾ 또한 안정복이 豹菴 姜世晃(1713~1791)의 처남인 海巖 柳慶種(1714~1784)에게 보낸 서찰에서 서책을 빌리고자 노력하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⁴⁾ 더욱이 『잡동산이』는 초서를 바탕으로 완성한 저술로서, 다양한 저서와도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본고는 안정복이 다양한 筆記雜錄類를 초록하여 『잡동산이』에 편집한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잡동산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필기잡록류를 수록하고 있는바, 『잡동산이』 권29(초고본)에는 『破閑集』⁵⁾, 『思齋撫言』⁶⁾, 『於于野談』⁷⁾ 등 국내 필기잡록류가 등장하고 있다. 일찍이 洪萬宗(1643~1725)은 『사재척언』과 『어우야담』 가운데 詩話를 선집하여 『詩話叢林』을 편찬한 바 있는데,⁸⁾ 이는 『잡동산이』에 수록된 「破閑集抄」⁹⁾, 「思齋撫言抄」¹⁰⁾, 「於于野談」¹¹⁾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

1) 연구 성과는 <참고문헌>에 상세하다.

2) 안정복, 『順菴集』 권1, 「題鈔書籠」참조.

3) 안정복, 『順菴集』 권1, 「題著書籠」참조.

4) 강경훈, 「順菴 安鼎福의 乞冊書札에 대하여-安山과 海巖의 南人詞壇을 中心으로」, 『汎友 尹炯斗先生 華甲記念論文集』, 보경문화사, 1995.

5) 『과한집』에는 상 25조, 중 25, 하 33조 총 83조의 시화가 수록되어 있다.

6) 『사재척언』에는 견문일화와 야담 등 총 91조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7) 『어우야담』에는 야담과 필기에 해당하는 총 558조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8) 『시화총립』에는 『사재척언』 10조, 『어우야담』 42조가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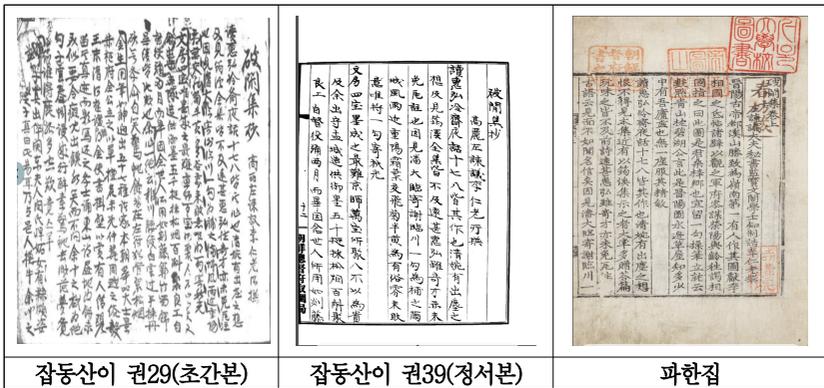
9) 「과한집초」는 『과한집』 83조 가운데 상 15조, 중 12조, 하 22조 총 49조를 수록하고 있다. 이는 『잡동산이』 권39(정서본)와 『잡동산이』 책3(영인본)에 수록되어 있다.

10) 「사재척언초」는 『사재척언』 91조 가운데 총 18조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는 『잡동산이』 권39(정서본)와 『잡동산이』 책3(영인본)에 수록되어 있다.

하는데 참고할 만하다.

따라서 본고는 안정복이 『파한집』·『사재적언』·『어우야담』에서 어떤 내용을 초록하여 『잡동산이』에 편집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안정복의 초서와 『잡동산이』의 관계뿐 아니라, 『잡동산이』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破閑集』 초서와 특징



그리고 관련 일화인데, 자신의 견해를 보태어 간략하게 서술한 글을 집성한 형태이다. 『파한집』은 1260년(초간본)·1492년(재간본)·1658년(삼간본) 총 3차에 걸쳐 간행되었다.

일찍이 홍만중은 우리나라 시화를 집대성하여 1712년에 『시화총림』을 편찬한 바 있는데, 『파한집』·『보한집』·『동인시화』 등의 시화로만 이루어진 것은 초록하지 않았다.¹³⁾ 따라서 『잡동산이』에 수록된 「破閑集抄」는 『파한집』에 대한 최초의 초록이다. 안정복은 『파한집』 총 83조 가운데 47조(상 15조, 중 12조, 하 22조)를 초록하여 『잡동산이』에 편집하고 있다.

[破閑集抄의 구성과 내용]

破閑集抄	破閑集上	東文選	破閑集抄	破閑集中	東文選	破閑集抄	破閑集下	東文選
1	2	×	1	1	이인로○	1	1	×
2	3	이인로○	2	2	×	2	2	×
3	4	×	3	3	×	3	3	×
4	5	×	4	4	×	4	4	임춘○
5	7	이인로○	5	5	이지저○	5	6	정습명○
6	8	이인로○	6	6	이인로○	6	8	임춘○
7	10	×	7	17	×	7	9	×
8	12	이인로○	8	20	×	8	10	×
9	13	이인로○	9	22	×	9	11	×
10	14	이인로○	10	21	×	10	12	박공습○
11	15	이인로○	11	23	최치원○	11	25	×
12	16	이지심○ 이인로○	12	24	이공승○	12	29	×
13	23	×				13	22	오세재○
14	22	정지상○				14	17	정습명○ 황보탁○
15	21	×				15	16	×
						16	15	×
						17	14	×
						18	18	오정석○ 임춘○

13) 洪萬宗, 『詩話叢林』, 「凡例」. “如『破閑集』·『補閑集』·『東人詩話』, 專是詩話, 當以全書看閱, 故茲不抄錄.”

						19	19	×
						20	30	정지상○
						21	31	최균○
						22	23	×

조선 전기까지 역대 詩文을 총집한 『동문선』¹⁴⁾과 상호 비교·검토하면, 「과한집초」의 구성과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과한집초」는 총 47조를 수록하고 있는바, 『동문선』에 수록된 내용은 23조로 한시는 26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안정복은 『동문선』에 수록되지 않은 시화와 시를 보충하여 「과한집초」를 완성하고 『잡동산이』에 편집한 셈이다.

안정복이 『과한집』을 초록하는 방식은 『동문선』의 수록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문선』에 수록된 사례이다.

【破閑集抄】文房四寶，墨成之最艱。京師萬寶所聚，人不以為貴。及余出守孟城，造供御墨五千挺，採松烟百斛，聚良工，自督役，彌兩月而畢。因念世人所用，如刺藤·蘄竹·蜀錦·吳綾，皆類此也。余作一絕云：“稚川腰綬白雲邊，手採丹砂欲學仙。自笑驚蛇餘習在，左符猶管碧松烟。”

【破閑集上(3)】文房四寶，皆儒者所須，唯墨成之最艱。然京師萬寶所聚，求之易得，故人人皆不以為貴焉。及僕出守孟城，承都督府符，造供御墨五千挺，趁春月首納之。乘遽到孔巖村，驅民採松烟百斛，聚良工躬自督役，彌兩月云畢。凡面目衣裳，皆有烟煤之色。移就他所，洗浴良苦，然後還城。是後見墨雖一寸，重若千金，不敢忽也。因念世人所用，如刺藤·蘄竹·蜀錦·吳綾，皆類此。古人云：“慣農詩，誰知盤中粒，粒粒皆辛苦，誠仁者之語也。”僕始得孟城，作一絕云：“稚川腰綬白雲邊，手採丹砂欲學仙。自笑驚蛇餘習在，左符猶管碧松烟。”

이인로가 맹성 수령으로 부임해서 松煙墨을 만들어 진상하고 칠언절

14) 李睟光, 『芝峯類說』 권7, 「經書部」 3, 「書籍」. “我東詩文選集不多, 佔畢齋所撰『靑丘風雅』, 『東文粹』, 雖曰精抄, 而未免太簡, 雖『東文選』博矣, 而主選者多以愛憎爲取舍, 『續東文選』尤甚, 難免狗尾之詬, 識者恨之.”

구를 지은 내용으로, 『동문선』에는 「初到孟州[造貢墨處]」로 수록되어 있다.¹⁵⁾ 본래 『파한집』에는 송연묵의 제작 과정과 李神(772~846)의 「憫農」의 3·4구를 모두 수록하고 있지만, 「파한집초」는 송연묵의 제작 과정과 이신의 「민농」을 생략하고 있다. 이는 이인로가 칠언절구를 지은 일화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한 것으로, 이인로의 칠언절구를 이해하는데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둘째, 『동문선』에 수록되지 않은 사례이다.

[破閑集抄] 金學士黃元·李左司仲若·郭處士璵, 皆奇士. 相友, 號神交. 二公嘗訪左司第, 清談臺臺, 不覺日暮, 須臾月. 相與登南樓小飲, 點韻各成一聯. 李率然曰: “壯氣暗生天外劍, 雄謀潛轉幄中籌.” 郭云: “座中冰雪三山客, 秤上鎖銖萬戶侯.” 次至黃元曰: “異於三子者之撰.” 遂引滿朗吟曰: “日暮鳥聲藏碧樹, 月明人語上高樓.” 二公不覺屈膝.

[破閑集中(17)] 金學士黃元·李左司仲若·郭處士璵, 皆奇士. 少以文章相友, 號神交. 二公嘗訪左司第, 清談臺臺, 不覺日暮, 須臾月出雲開碧天如水. 相與登南樓小飲, 點韻各成一聯. 李率然曰: “壯氣暗生天外劍, 雄謀潛轉幄中籌.” 郭云: “座中冰雪三山客, 秤上鎖銖萬戶侯.” 次至於黃元曰: “異於三子者之撰.” 遂引滿朗吟曰: “日暮鳥聲藏碧樹, 月明人語上高樓.” 二公不覺屈膝曰: “雖古人何遠?” 遂罷. 吾友湛之, 卽左司內孫. 僕嘗見其真跡, 醉墨宛然, 眞家寶也.

김황원과 곽여가 이중약을 찾아가 청담을 나누는데 달이 떠오르고 구름이 사라지면서 푸른 하늘이 드러나, 남쪽 누대에 올라 술을 마시고 운자를 정해서 한 연씩 짓고, 김황원의 시구에 두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는 내용이다. 『파한집』에는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감탄한 말과 이인로가 李湛之에게서 당시에 남긴 글씨의 진적을 열람한 내용까지 상세하다. 그런데 「파한집초」는 이러한 내용을 생략한 채,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는 내용만을 초록하고 있다. 안정복은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감탄한 말과

15) 『東文選』 권20, 「初到孟州[造貢墨處]」. 『동문선』에는 1구 ‘稚’가 ‘雉’로, 2구 ‘學’이 ‘訪’으로 되어 있다.

이인로가 李湛之에게서 당시에 남긴 글씨의 진적을 열람한 내용은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안정복은 『파한집』을 초록하여 『잡동산이』에 편집하면서, 한시 작품과 당시 정황을 파악하는데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초록하고 있다. 이는 『파한집』에 대한 최초의 초록으로, 『잡동산이』의 내용과 특징의 일단을 보여준다.

Ⅲ. 『思齋撫言』 초서와 특징

<p>잡동산이 권29(초간본)</p>	<p>잡동산이 권39(정서본)</p>	<p>시화총림(사재척언)</p>	<p>청운잡총(시화총림)</p>

金正國(1485~1541)의 『사재척언』은 『思齋集』 권4에 수록되어 있는데, 官歷 중의 聞見逸話와 당시 인물들의 逸話 등을 91조에 걸쳐 만필식으로 기록한 내용이다. 이후 『사재척언』은 홍만종의 『시화총림』에 10조, 저자 미상의 『靑韻雜叢』¹⁶⁾에 9조가 수록되기에 이른다. 안정복은 『사재척언』 총 91조 가운데 18조를 초록하여 『잡동산이』에 편집하고 있

16) 『청운잡총』은 1책으로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白雲小說』, 『樸翁稱說』, 『慵齋叢話』, 『秋江冷話』, 『說聞瑣錄』, 『思齋撫言』, 『龍泉談寂記』를 수록하고 있는데, 『시화총림』을 轉載한 형태이다.

는데, 앞서 『시화총림』, 『정운잡총』과 비교하면 내용이 더욱 풍부하다.

[思齋摭言抄의 구성과 내용]

思齋摭言抄	思齋摭言	詩話叢林(思齋摭言)	靑韻雜叢(思齋摭言)
1	7	6	7
2	9	7	12
3	12	12	13
4	26	13	22
5	31	22	38
6	38	38	70
7	74	70	73
8	73	73	74
9	72	74	91
10	70	91	
11	62		
12	53		
13	50		
14	49		
15	6		
16	15		
17	16		
18	17		

우리나라 역대 시화를 집성한 『시화총림』과 상호 비교·검토하면, 「사재척언초」의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재척언초」는 총 18조를 수록하고 있는바, 『시화총림』의 10조 가운데 7조만 동일한 내용이다. 이는 안정복이 『시화총림』과는 별개로 『사재척언』을 초록했음을 의미한다.

안정복이 『사재척언』을 초록하는 방식은 『시화총림』의 수록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화총림』에 수록된 사례이다.

[思齋摭言抄] 柳從龍雲, 性軼宕. 二十, 登第, 廿五六, 已躋三品. 爲忠淸御, 初入公州, 以謂必選進妙, 下帳大臥俟之. 州官恐忤霜威, 不敢進, 只令以通引衛宿. 終宵

耿耿，詰朝將發，一絕書寢屏曰：“公山太守怯威稜，御史風情識未曾。空館無人消永夜，南來行色淡於僧。”聞者大噱。

【思齋撫言(12)】柳從龍雲，性軼宕，不拘小節。年十七，中司馬試，二十，登第，居亞元，廿五六，已躋三品。嘗爲忠清御史，初入公州，意以謂必選進妙妓薦枕，下帳大臥以俟之。州官以御史不如他使客，恐忤霜威，不敢進妓，只令以通引宿衛廡下。終宵耿耿，寂無人跡聲。詰朝將發，吟一絕書寢屏曰：“公山太守怯威稜，御史風情識未曾。空館無人消永夜，南來行色淡於僧。”聞者大噱。

천성이 놀기를 좋아하고 사소한 예절에 구속받지 않았던 유운이 충청 어사가 되어 공주에 가서 아름다운 기녀를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날이 밝자 병풍에 칠언절구를 남긴 내용이다. 『사재척언』에는 유운이 급제한 사실과 공주 관리가 기녀를 들이지 않은 이유가 상세하다. 반면 「사재척언초」는 유운이 칠언절구를 지은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한다. 이는 안정복이 유운의 칠언절구를 이해하는데 불필요한 내용을 생략하려는 의도이다.

둘째, 『시화총림』에 수록되지 않은 사례이다.

【思齋撫言抄】朴斯文世平，家陰城。李四宰紆，坐己卯黨，退居陰城。朴一日，以紫蝦·青苽·交沈菹[俗名曰感動菹]送之曰：“此菹甚有滋味，公必爲之感動矣。”李公謝曰：“謹承別味，感動則有之，第恨君酷好無實，世人以此少之。自今以後，權停可也。[紫蝦一名權停]”。

【思齋撫言(31)】朴斯文世平，善爲戲謔語，家在陰城。李四宰紆，坐己卯黨籍罷官，退居陰城村舍。朴斯文時方從事于朝，有時謁告歸鄉，則必携酒就訪，或以饌物送餽。一日，以紫蝦·青苽·交沈菹[俗名曰感動菹]送饋曰：“此菹甚有滋味，公必爲之感動矣。”李公書簡尾回謝曰：“謹承別味，感動則有之，第恨君酷好駁雜無實之言，世人以此少之。自今以後，權停[紫蝦之俗名曰權停]可也。”朴則癖而不能工，李公不癖而偶言益工。聞者大笑。

박세평이 紫蝦·青苽·交沈菹를 선물로 보내자, 이자가 편지로 사례하며

별미를 받고 감동은 했지만 그대가 박잡무실한 말을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이 깔보니 그런 행동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 일화이다. 『사재척언』에는 박세평이 음성에 은거하는 이자를 자주 방문한 사실을 비롯하여 박세평과 이자에 대한 평가까지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사재척언초」는 박세평이 선물을 보내고 이자가 조언한 내용만을 전한다. 안정복은 感動菹로 불리는 交沈菹와 權僇으로 불리는 紫蝦를 중심에 놓고 두 사람의 대화를 초록하는 방식으로 시선을 집중시킨다.

또한 「사재척언초」는 『시화총림』에 수록된 7조의 시화도 수록하고 있지만, 웃음을 유발하는 내용이 상당수에 해당한다.¹⁷⁾ 이는 필기잡록류 가운데 시화뿐 아니라 웃음을 유발하는 笑話의 기능을 고려한 안정복의 의도로 읽혀진다.

IV. 『於于野談』 초서와 특징

<p>잡동산이 권29(초간본)</p>	<p>잡동산이 권43(정서본)</p>	<p>어우야담</p>	<p>시화총림(어우야담)</p>

17) 『사재척언』 7, “聞者大笑.” : 12, “聞者大噓.” : 15, “滿座大笑.” : 16, “聞者絶倒.” : 17, “同行執事, 無不絶倒.” : 26, “可笑.” : 31, “聞者大笑.” : 70, “聞者大笑.”

柳夢寅(1559~1623)의 『어우야담』은 조선 후기 야담의 시원을 연 저작으로 한국학의 주요 고전이다. 『어우야담』에는 문학성을 지닌 야담적 이야기와 함께 여러 필기적 기록들이 담겨 있다. 이는 전대의 필기잡록류를 계승하면서 야담을 개척하는 과도기적 저작임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하겠다. 그런데 『어우야담』은 유몽인에 의해 정리되지 못한 채 오래도록 散傳되어 수많은 이본이 전하는 상황이다. 최근 연구 성과에 따르면, 『어우야담』에는 야담과 필기에 해당하는 총 558조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¹⁸⁾

홍만중의 『시화총림』에 시화에 해당하는 42조가 전하고 있고, 「어우야담」에는 야담과 필기에 해당하는 총 52조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¹⁹⁾ 「어우야담」은 『시화총림』의 42조 가운데 8조만 동일할 뿐 전혀 다른 모습이고, 「파한집초」·「사재척언초」와도 판판이다.

[於于野談抄의 내용과 구성]

於于野談抄	於于野談	詩話叢林(於于野談)	於于野談抄	於于野談	詩話叢林(於于野談)
1	490	274	27	530	222
2	448	172	28	55	219
3	447	203	29	427	521
4	368	37	30	418	208
5	惺叟詩話	227	31	428	233
6	305	214	32	360	204
7	306	216	33	450	197
8	322	235	34	165	320
9	88	209	35	276	223
10	425	226	36	313	194
11	315	205	37	429	224
12	316	207	38	513	215
13	518	195	39	378	176
14	491	229	40	224	217
15	517	407	41	57	178
16	504	426	42	301	171
17	43	232	43	445	
18	39	406	44	222	

18) 신익철(2006), 「어우야담 해제」, 『어우야담(원문)』, 돌베개.

19) 田禹治 관련 내용은 『어우야담』에는 없고 『성수시화』에 보인다.

19	468	220	45	227	
20	23	190	46	274	
21	431	544	47	320	
22	234	198	48	178	
23	449	173	49	332	
24	260	228	50	171	
25	66	213	51	215	
26	75	286	52	188	

「어우야담」은 『어우야담』을 간략하게 51조로 초록하고, 許筠(1569~1618)의 『성수시화』에서 1조를 초록하여 총 52조이다. 안정복은 『어우야담』에서 유사한 내용을 포괄해서 초록하고 있는바,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조 때 뛰어난 의원인 양예수와 안덕수의 일화이다.

[於于野談抄] 楊禮壽安德壽, 宣祖朝神醫也. 楊用霸道.

[於于野談(305)] 楊禮壽, 昭敬大王朝太醫也. 幼時, 謁鄭湖陰于直廬, 湖陰方讀陽節潘氏歷代論, 謂禮壽曰: “爾亦志學耶?” 仍誨其論一遍, 去其冊使誦之, 禮壽應口而誦, 終篇不錯. 湖陰大驚曰: “以爾之才, 學文章, 當我衣鉢.” (下略)

[於于野談(306)] 安德壽, 昭敬大王朝老神名醫也. 年老多病, 罕與人相接, 而其診病命藥, 百不一差, 雖難名痼疾, 無不治. 世稱楊禮壽用霸道, 速效而多傷人, 安德壽用王道, 效遲而不傷人, 時論多歸安. (下略)

『어우야담』에는 양예수와 안덕수의 일화를 각각 상세하게 기록하는 한편, 양예수는 패도를 사용하여 효험은 빠르지만 사람을 많이 상하게 하지만 안덕수는 왕도를 사용하여 효험은 더디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수록하고 있다. 반면 「어우야담」은 양예수와 안덕수가 선조 때의 뛰어난 의원인데, 양예수는 패도를 사용한다는 내용만 수록하고 있다. 안정복은 『어우야담』의 양예수와 안덕수의 내용을 읽으면서 중요하거나 인상적인 내용을 표시했다가 옮겨 적은 형태이다. 따라서 양예

수와 안덕수가 선조 때의 뛰어난 의원인데, 양예수는 패도를 사용했다는 내용만을 초록하고 있다.

『어우야담』에는 詩識과 시인의 窮賤에 관련한 내용이 등장한다.

[於于野談] 吾友成汝學, 詩才高, 年六七十, 未得一命. 其詩曰: “草露虫聲濕, 枝風鳥夢危.” 又曰: “雨意偏侵夢, 秋光欲染詩.” 蓋其寒淡故也. 尹繼善善詩, 會人宴席卽吟曰: “官遊千里甘盡, 世事一春花落忙.” 果夭. 宋蘇舜欽詩, “身如蟬脫一榻上, 夢似楊花千里飛.” 夭微也, “山蟬帶響穿疎戶, 野蔓蝻青入破.” 賤像也. 蘇東坡「松醪賦」曰: “遂從此而入海, 渺翻天之雲濤.” 未幾, 謫南海.

[於于野談(215)] (前略) 吾友成汝學, 詩才之高一世寡倫, 而至今六十, 未得一命之官, 余嘗[怪之. 其詩曰: “草露虫聲濕, 枝風鳥夢危.” …(中略)… 又曰: “雨意偏侵夢, 秋光欲染詩.” 其詩雖極工, 而其寒淡蕭索, 殊非榮貴人氣像, 豈獨詩之使其窮哉? 詩亦鳴其窮也. …(中略)… 余與尹修撰繼善, 於詩人李孝原家小酌, 繼善卽題一聯曰: “官遊千里甘盡, 世事一春花落忙.” 座中皆稱其美, 余曰: “年少人何作此語?” 果未久而夭. …(下略)

[於于野談(188)] (前略) 蘇舜欽詩曰: “身如蟬脫一榻上, 夢似楊花千里飛.” 夭微也, “山蟬帶響穿疎戶, 野蔓蝻青入破.” 賤微也. 蘇東坡「松醪賦」曰: “遂從此而入海, 渺翻天之雲濤.” 未久, 謫南海. …(下略)

그런데 「어우야담」은 성여학의 寒淡과 윤계선의 夭折, 그리고 소순흙의 夭微과 賤微 및 소식이 남해로 귀양을 간 일화를 포괄해서 수록하고 있다. 본래 『어우야담』이 중국과 조선의 사례를 구분하여 상세히 기록하는 것과는 달리, 「어우야담초」는 유사한 내용을 포괄하는 한편, 조선의 성여학과 윤계선, 중국의 소순흙과 소식에 한정하여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는 『어우야담』의 내용을 축약하여 초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서하다가 중요하거나 인상적인 대목을 표시하고 옮겨 적은 형태로 보인다. 따라서 「어우야담」의 초록 방식은 앞선 「과한집초」·「사재척언초」와는 판이하다.

그런데, 「어우야담」에는 『어우야담』에 없는 내용을 초록한 사례도 보

이는데, 이는 『성수시화』에 유사한 내용이 등장한다.

[於于野談] 田禹治, 游三日浦, 詩曰: “秋晚瑤潭霜氣清, 天風吹下紫簫聲. 青鸞不至海天闊, 三十六峯明月明.” 後以惑衆, 逮信川獄死, 及啓棺, 乃空云云.

[惺叟詩話] 羽士田禹治, 人言仙去, 其詩甚清越. 嘗游三日浦作詩曰: “秋晚瑤潭霜氣清, 天風吹下紫簫聲. 青鸞不至海天闊, 三十六峯明月明.” 讀之爽然.

술사로 유명한 전우치가 삼일포를 유람하고 지은 칠언절구에 대한 내용이다. 실제로 『어우야담』에는 전우치 관련 기록이 상세하지만, 삼일포를 유람한 칠언절구는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성수시화』에 이 내용이 전한다. 이는 안정복이 『성수시화』의 전우치의 관련 시화를 『어우야담』으로 착각한 오류에 해당한다.

V. 맺음말

본고는 지금까지 『파한집』, 『사재척언』, 『어우야담』의 초서와 특징을 중심으로 안정복의 초서와 『잡동산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잡동산이』 권29(초고본)에는 『파한집』, 『사재척언』, 『어우야담』 등 국내 필기잡록류를 초록하고 있다. 일찍이 홍만종은 『사재척언』과 『어우야담』 가운데 시화를 선집하여 『시화총립』을 편찬한 바도 있어 참고할 만하다.

『잡동산이』에 수록된 「破閑集抄」, 「思齋撫言抄」, 「於于野談」의 내용과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안정복이 『파한집』을 초록하는 방식은 『동문선』의 수록 여부에 따라 다르다. 안정복은 『파한집』을 초록하여 『잡동산이』에 편집하면서, 한시 작품과 당시 정황을 파악하는데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초록하고 있다. 또한 『사재척언』을 초록하는 방식은 『시화총립』의 수록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웃음을 유발하는 내용이 상당수에 해당한다. 이는

필기잡록류 가운데 시화뿐 아니라 웃음을 유발하는 笑話의 기능을 고려한 안정복의 의도로 읽혀진다. 아울러 「어우야담」의 초록 방식은 앞선 「과한집초」·「사재척언초」와는 판이하다. 『어우야담』의 내용을 축약하여 초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서하다가 중요하거나 인상적인 대목을 표시하고 옮겨 적은 형태로 보인다. 한 마디로 안정복의 초서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전달하려는 의도이며, 이는 『잡동산이』의 내용과 특징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끝으로 『잡동산이』의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는데 참고할 내용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鄭希良과 관련된 인물로 金輪 또는 金倫에 대한 내용이다.

[思齋撫言(91)] 卜者金倫, 少時遊平安道香山等處, 逢一方外之士名李千年者, 從行遊歷諸山幾六七年, 得授數術, 以覲父母, 辭還嶺東本家, 仍推數斷人吉凶禍福, 百無一誤. 千年與倫期於己酉年來江西縣之九龍山待我云, 手書贈詩曰: “八十山中老, 三彭已掃除. 人間應不夢, 鶴伴意無餘. 雪榻蟾光冷, 雲牕日影疏. 誰知無累鑑, 萬代自清虛.” 歲丁白卯月指春暮既望日, 松竹處士愚齋稿. 然只記祕趣, 非流下世云耳. 又至丹溪贈詩曰: “偷閑一醉是天遊, 箇裏江楓稅客留. 啄木峯高天若近, 秀林亭下地疑浮. 二娘魂魄千年事, 九曲江聲萬古流. 胸海久牽塵勞擾, 丹溪此日洗吾愁.” 黑蛇之歲, 愚齋書. 其侍奉小奚, 年可十三四, 亦手書贈詩曰: “天地無家山水客, 生涯一句意如如. 苔痕山路白雲鎖, 月影清冷竹影疏.” 又書一詩曰: “碧山雲萬疊, 滄海關無邊. 爲問緣何事, 歸心北闕懸.” 詩格高古, 筆跡奇健. 至於侍兒, 詩才筆法亦不凡, 非尋常方士明矣. …(下略)

[詩話叢林] 卜者金倫, 少時遊平安道香山等處, 逢一方外之士名李千年者, 從行遊歷諸山幾六七年, 得授數術. 及解還千年, 贈詩曰: “八十山中老, 三彭已掃除. 人間應不夢, 鶴伴意無餘. 雪榻蟾光冷, 雲牕日影疏. 誰知無累鑑, 萬代自清虛.” 其侍奉小奚, 年可十三四, 亦手書贈詩曰: “天地無家山水客, 生涯一句意如如. 苔痕山路白雲鎖, 月影清冷竹影疏.” 又書一詩曰: “碧山雲萬疊, 滄海關無邊. 爲問緣何事, 歸心北闕懸.” 詩格高古, 筆跡奇健. 至於侍兒, 詩才筆法亦不凡, 非尋常方士明矣. 或言千年卽鄭希良云.

[於于野談(88)] 鄭希良, …(中略)… 後長髮爲居士, 自號李千年. 時有金輪者, 寒賤人也. 從希良, 學推數, 服從多年. 希良嘗推上中下三元人命, 累成篇秩, 細書如毫髮, 大如斗者, 百餘卷, 名明鑑數. …(中略)… 李賀者, 京山釋子也. …(中略)… 或曰: “其師老僧, 卽鄭希良也.” …(下略)

[於于野談] 鄭希良, 亡命爲僧云云. 嘗推上中下三元人命, 成秩百餘卷云云. 弟子金輪李賀, 傳其卜筮云云.

김륜에 대한 일화는 『사재척언(91)』·『어우야담(88)』·『시화총림(사재척언)』·『어우야담』에 등장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김륜의 일화는 『시화총림(사재척언)』·『청운잡총(사재척언)』에 수록되어 있지만, 『사재척언초』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안정복이 『어우야담』에서 김륜의 일화를 초록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김륜의 일화를 중복해서 초록하지 않으려는 안정복의 의도로 보이는데, 『잡동산이』의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는 단초라고 하겠다.

※ 이 논문은 2024년 11월 24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2월 0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安鼎福, 『雜同散異』 42권(초고본), 서울대 규장각.
安鼎福, 『雜同散異』 53권(정서본), 서울대 규장각.
安鼎福, 『雜同散異』 4책, 아세아문화사, 1981.
李仁老, 『破閑集』, 서울대 규장각.
金正國, 『思齋集』, 한국문집총간 23, 한국고전번역원.
柳夢寅, 『於于野談』, 국립중앙도서관.
洪萬宗, 『詩話叢林』, 서울대 규장각.
未詳, 『靑韻雜叢』, 일본 동양문고.
姜希孟, 『私淑齋集』, 한국문집총간 12, 한국고전번역원.
李睟光, 『芝峯類說』, 국립중앙도서관.
許筠, 『惺所覆瓿藁』, 한국문집총간 74, 한국고전번역원.
- 강세구, 『순암 안정복의 동사강목 연구』, 순암연구총서1, 성균관대 출판부, 2012.
강세구, 『순암 안정복의 사상과 학문세계』, 순암연구총서2, 성균관대 출판부, 2012.
이우성·이기백 외, 『순암 안정복의 역사학』, 순암연구총서3, 성균관대 출판부, 2012.
김태영·이동환 외, 『순암 안정복의 경학과 사회사상』, 순암연구총서4, 성균관대 출판부, 2012.
금장태·정순우 외, 『순암 안정복의 서학인식과 교육사상』, 순암연구총서5, 성균관대 출판부, 2012.
임형택 외, 『순암 안정복의 학문과 사상』, 순암연구총서6, 성균관대 출판부, 2013.
김현영 외, 『순암 안정복의 일상과 이택재 장서』, 순암연구총서7, 성균관대 출판부, 2013.
이인로 저, 신영주 외 역, 『새로 읽는 파한집』, 문자향, 2024.
홍만중 저, 홍찬유 역, 『역주 시화총립』, 고전간행회, 2014.
유몽인 저, 신익철 외 역, 『어우야담』, 돌베개, 2006.
유몽인 저, 신익철 외 역, 『어우야담(원문)』, 돌베개, 2006.
강경훈, 「順菴 安鼎福의 乞冊書札에 대하여-安山과 海巖의 南人詞壇을 中心으로」, 『汎友 尹炯斗先生 華甲記念論文集』, 보경문화사, 1995.

- 김대중, 「안정복의 朝鮮學人 遺文 수습-『잡동산이』 제22책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35, 한국실학학회, 2018, 79~120쪽.
- 김대중, 「『잡동산이』내 碑誌傳狀 수습 양상」, 『한국실학연구』 38, 한국실학학회, 2019, 213~246쪽.
- 김대중, 「『잡동산이』 소재 眉叟遺文에 대한 고찰」, 『한국실학연구』 43, 한국실학학회, 2022, 203~241쪽.
- 김현영, 「『順庵日記』 筭錄-서학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1, 한국고문서학회, 2017, 215~236쪽.
- 부유섭, 「類書類 古典籍의 綜合的 檢討」, 『민족문화』 54, 한국고전번역원, 2019, 57~101쪽.
- 부유섭, 「安鼎福의 『雜同散異』와 陳仁錫의 『經世八編類纂』」, 『한국실학연구』 39, 한국실학학회, 2020, 80~111쪽.
- 손혜리, 「안정복의 명나라 유민에 대한 기록과 인식-『잡동산이』를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3, 한국실학학회, 2022, 271~304쪽.
- 심우준·정필모, 「順庵 安鼎福研究 序說-그의 生涯와 著述을 中心으로」, 『인문과학연구』 1, 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 1974, 5~36쪽.
- 이혜은·김효경,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안정복 장서 수집과 자료적 특징」, 『고문서연구』 43, 한국고문서학회, 2013, 181~203쪽.
- 임형택, 「朝鮮使行의 海路 燕行錄-17세기 東北亞의 歷史轉換과 實學」, 『한국실학연구』 9, 한국실학학회, 2005, 1~35쪽.
- 임형택, 「실학적 지식과 저술의 형태-『迂書』, 『雜同散異』, 『林園經濟志』」, 『한국실학연구』 38, 한국실학학회, 2019, 7~41쪽.
- 최 식, 「『雜同散異』의 異本과 特徵」, 『한국실학연구』 43, 한국실학학회, 2022, 167~202쪽.
- 최 식, 「『雜同散異』의 形成 過程과 抄書著書」, 『대동한문학』 71, 대동한문학회, 2022, 217~249쪽.
- 함영대, 「순암 안정복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실학연구』 25, 한국실학학회, 2013, 211~262쪽.
- 함영대, 「순암 안정복의 求學의 여정과 講學의 관점」, 『한국한문학연구』 58, 한국한문학회, 2015, 31~67쪽.

- 함영대, 「조선후기 근기 남인의 독서노트-순암 안정복의 초서롱」, 『한국문화』 78, 서울대 규장각, 2017, 57~80쪽.
- 함영대, 「『반계수록』의 전승과 『잡동산이』」, 『한국실학연구』 35, 한국실학학회, 2018, 121~157쪽.
- 함영대, 「순암 안정복의 『國朝典故雜錄』 분석-『잡동산이』의 성격과 그 항목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3, 한국실학학회, 2022, 243~269쪽.
- Andreas Mueller-Lee, 「『雜同散異』의 서지학적 문제 그리고 類書와의 관계에 대한 몇 개의 旁註」, 『규장각』 31, 서울대 규장각, 2007, 261~281쪽.

Abstract

The Abstract Edition of Ahn Jeong Bok and Japdongsani

-Focusing on the Abstract E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Pahanjip, Sajaechoeon, and Eowuyadam-

Choi, Sik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the abstract edition of Ahn Jeong Bok and Japdongsani with the focus on the abstract e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Pahanjip, Sajaechoeon, and Eowuyadam. Volume 29 (abstract version) of Japdongsani summarizes miscellanea of various domestic writings such as Pahanjip, Sajaechoeon, and Eowuyadam. This analysis is of significance since Hong Man Jong published Sihwachonglim with poems selected from Sajaechoeon and Eowuyadam long ago.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Pahanjip-cho」, 「Sajaechoeon-cho」, and 「Eowuyadam-chowuyadam」 included in Japdongsani:

How Ahn Jeong Bok abstracted points from Pahanjip depended on whether to include them in Dongmunseon. While abstracting points from Pahanjip and preparing Japdongsani, for example, Ahn Jeong Bok focused on providing the minimal information necessary to understand poem works and circumstances at that time. The abstracting for Sajaechoeon depended on whether to include works in Sihwachonglim, and the majority of contents were basically laughical. In this regard, Ahn Jeong Bok's intent is thought to consider characteristics of laughical stories in addition to poems as part of the

miscellanea. The way of abstracting for 「Eowuyadam」 was quite different from that for the previous works of 「Pahanjip-cho」 and 「Sajaecheogeon-cho」. It was not a summary of Eowuyadam but indicating and copying important or impressive contents that he found while reading those works. In other words, the abstract edition of Ahn Jeong Bok was to provide and share the minimal information as a summary of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Japdongsani.

keywords :

Ahn Jeong Bok(安鼎福), abstract edition-cho, characteristics, Japdongsani(雜同散異), 「Pahanjip-cho(破閑集抄)」, 「Sajaecheogeon-cho(思齋撫言抄)」, 「Eowuyadam(於于野談)」